

금속인천 소식

1호

■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 발행인 : 두대선 ■ 발행일 : 2018년 2월 13일 ■ 편집 : 교육선전부 ■ 10기 1호

일주일은 주5일? 엽기적인 행정해석에 일침!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개악 꿈도 꾸지마라.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사업주의 위반사항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사례를 보면, 법정 최저시급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넘어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꼼수문제, 휴일, 휴가제도 변경문제, 임금 삭감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문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생존권을 박탈하는 해고 등이 불법과 탈법

행위로 수도룩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시행 관련 탈법 행위와 제도개악, 자본과 언론의 왜곡 주장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선언 했다. 한편 금속노조도 “미조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지키고, 올리는 싸움에 앞장서겠다고 선언 하고, 사업주의 온갖 불법, 편법행위에 맞서는 투쟁”을 전국에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지부와 권리찾기 사업단도 공단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막고, 노동자 임금과 권리를 지키는 일! 17만 금속노조가 함께 합니다”라는

선전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2월 1일 양대노총 제노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제노연대 대표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악안 철회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중단 ▶제조특별법 제정 ▶구조조정 저지 ▶사회적 대화 실현 등 5개 대정부,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적극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렇다. 전체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현 사안에 전국의 노동자가 단결하고 투쟁하기에 필요한 시기이고, 충분한 조건이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인천지부 10기 지부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지 두어 달이 지나고 있는데, 너무나도 산적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장폐업과 정리해고에 맞서 11년째 투쟁하고 계시는 콜트-콜텍 동지들!

지난해 공장매각과 전 조합원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1년여 동안 본사앞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해 왔던 동광기연지회 조합원 동지들!

매년 연말만 되면 고용불안에 몸살을 앓다가 결국 자본의 계약해지와 정리해고로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 투쟁하고 있는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동지들!

복수노조 사업장으로서 많음 어려움 있음에도 당당하게 현장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지회, 한스 코퍼레이션지회, 만도헬라지회 조합원 동지들!

지회장 부당징계와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하인스지회 동지들!

신규노조로써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교섭과 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유신정밀공업지회 동지들!

이렇듯 인천지부 산하 17개지회중 대다수 지회가 노조 탄압, 정리해고,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 인천지부 현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막농성 1년 만에 역사적인 고용승계 합의를 완전 쟁취하여 2월부터 조합원 전원이 공장으로 복직하는 동광기연지회 동지들의 정리해고 투쟁 승리 소식도 있습니다.

저는 이 투쟁이 인천지부 조합원동지들에게 “동광기연지회 조합원 스스로가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지역의 동지들이 연대하여 투쟁을 엄호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교훈과 자신감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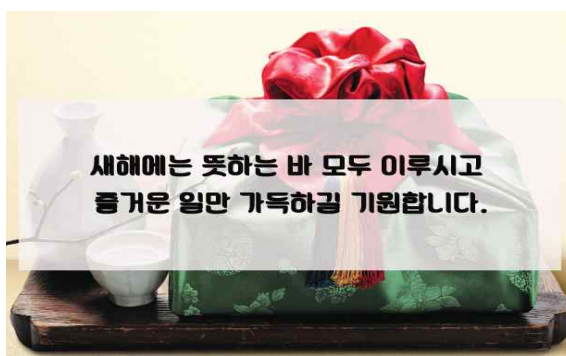
인천지부는 지난 12월 말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1월 31일부터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있는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투쟁을 승리를 위해 또다시 투쟁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엠비정규지회 조합원 동지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할수 있도록 인천지부 조합원 동지들이 더 크게 연대하여 투쟁을 엄호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속노조는 2018년 투쟁방침을 확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으며, 3월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2018년 투쟁방침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올해 반드시 완전 쟁취할 수 있도록 조직력과 투쟁력을 높여냅시다.

끝으로 설 명절을 맞아 조합원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18년 새해 지부장 두대선 올림 -



반갑습니다. 수석부지부장 이대우 입니다.

올해 1월 초 인천지부는 10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지부 총괄 사업계획과 부서 및 위원회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조직비정규사업부는 사업목표는 △ 전략조직화 사업의 정비 및 안착화, △ 공단조직화 사업의 확대 및 지역지회 건설, △ 사업장내 비정규직 해소와 차별철폐입니다. 최근 인천지부를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붕괴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의 역할은 다른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회들은 신규지회 결성 시 각종 투쟁에 헌신적으로 복무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지부에 비해 바지락 배포 사업도 모범적으로 진

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사업장 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노조할 권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엄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지부 운영위를 거쳐 사업장별 실태조사 및 각 지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지회 임원 및 간부 동지들의 적극적인 결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지부 이대우 수석부지부장 올림 -

안녕하십니까? 인천지부 조합원동지 여러분!!

사무국장 한대훈 입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한해 인 것 같습니다.

한해의 시작을 동광기연지회 승리로 열었습니다. 1년 동안 긴 투쟁 속에서 연대의 힘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해 주었고, 정말 오랜만에 투쟁의 승리 결실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4000일 넘게 이어오는 콜트 동지들의 싸움, 또 12월말 해고의 아픔 속에서 천막을 칠 수 밖에 없는 한국지엠부평비정규 동지들의 싸움이 여전히 속제로 남아 있습니다. 동광투쟁의 승리에서 연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느꼈다면, 올 한해 다시한번 그 연대의 힘으로 뭉쳐서 우리 콜트악기 정리해고 투쟁과 지엠비정규 동지들의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매듭지었으면 합니다.

유난히 더 추운 올 겨울 한파 속에서 투쟁 하는 동지들과 두 손 맞잡고 승리하는 인천지부가 되도록 저 또한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싸우면 이기는 또 한다면 기필코 해내는 기세 넘치는 인천지부가 되길 바라며 인천지부 모든 조합원들의 건강을 기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 인천지부 한대훈 사무국장 올림 -

투쟁사업장 소식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투쟁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황호인)가 1월 31일부터 정문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매주(수) 오후6시30분 투쟁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한국지엠과 하청업체가 계약해지를 이유로 6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길거리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해지, 인소싱, 업체변경 등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며 충고용 보장을 요구해 왔다.



▲ 2월 7일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지역의 연대단위가 농성장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전개하고 있다.

지회는 2월 13일 불법과건 소송 1심 판결 후 14시 30분부터 인천지방법원앞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2월 20일(16시) 한국지엠부평공장 정문앞에서 부평역까지 행진하며 대시민 선전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부는 지엠비정규 조합원들의 충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에 대책노의를 제안하여 추진하는 한편, 한국지엠 사측과 주요 정치권 간담회, 집회 등을 기획하고 있다.

■ 하인스지회 노조탄압 대응투쟁

하인스지회(지회장 박진현)가 최근 교섭대표노조, 부당노동행위, 지회장 징계 등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주)하인스(대표이사 박근영)는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박진현 지회장(생산 차장)에 대해 잔업특근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며 일방적으로 징계(직위해제) 강행했다. 또한 2018년 금속노조 단체교섭 공문(1월 15일)에 대해서도 사측은 1

월 17일에 공문접수를 했다고 우기며, 교섭요구 사실공고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공고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노위는 “금속노조 교섭요구일(1월 15일)에 맞춰서 재공고 하라.”고 결정했다.

하인스 사측이 이렇듯 노사관계를 파행적으로 몰아간 이유는 복수노조 문제이다. 하인스 기업노조는 1월 19일 조합원 5명으로 하여 서구청에 설립신고를 했고, 1월 23일 설립 필증을 받은 후 23일 사측에 교섭요구를 진행했다. 회사는 기업노조를 위해 금속노조 최초 교섭요구 일까지 허위로 기재하며 1월 26일 금속노조(조합원 11명)와 기업노조(조합원 14명)를 모두 교섭요구노조로 공고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부는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과 기업노조 가입 권유 문제, 지회장 징계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서구청에 “사측이 개입한 기업노조 설립 필증 취소”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회는 최근 사측의 금속노조에 대한 음해성 발언 등 노조탄압에 대해 더 이상 묵과 하지 않겠다며 총력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지회 소식

■ 만도헬라지회 소식

만도헬라지회(지회장 김동용)는 지난해 11월 현장복귀 후 조합원 조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측과 노조활동 관련 타임오프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만도헬라지회는 지난해 9월 노동청에서 불법과건 판정을 받고 비정규직지회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되었다. 그러나 과정에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만도헬라지회의 조직력이 이완되기도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랑스런 금속노조 조합원답게 현장에서 당당하게 민주노조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회는 3조2교대 근무로 인해 확대간부 회의도 어렵게 진행하고 있지만, 재 조직화 사업을 위해 의장단 및 확대간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유신정밀공업지회 소식

유신정밀공업지회(지회장 김종구)는 지난해 11월 26일

설립 되었으며, 남동공장과 당진공장을 포함하여 현재 조합원이 250여명이다.

김종구 지회장은 『인천지부 조합원님들 반갑습니다.께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신념으로 만들어진 유신정밀공업지회는 현재 본교섭을 6차까지 진행하였고, 단체협약요구안 전체를 검토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평화적인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사측이 노조를 대하는 태도와 차기교섭에 제시하는 안에 따라 노사관계 평화가 지속될지 유무가 결정될 것입니다. 지난 2월 9일 사측은 어려운 자금난을 빙자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지급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이후 지회와 협의와 합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뿐만아니라 사측 경영진은 중견기업의 임원으로서 대표자의 명분을 갖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만 대변하고 있고,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만을 내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유신정밀공업지회의 조합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행동, 노조를 무시하는 행동, 평화를 깨는 행동이 지속될 시, 이를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측이 취해온 모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사측의 성실교섭 태도와 제시안에 따라 교섭결렬을 하고 쟁의권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지부 소속지회와 모든 조합원 동지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우리는 하나다. 라는 신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투쟁! 우리는 반드시 승리 할 것입니다.』라는 인사말로 신규지회 소식을 전해 주었다.

■ 두산인프라코어지회 군산조합원 가입 소식

두산인프라코어지회(지회장 손원영) 조합원 수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군산공장에서 조합원 가입이 늘어나면서 현재 91명이 군산분회 소속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천공장 포함 전체 250여명으로 조직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지회는 복수노조 이후 소수노조로서 교섭권에서 배제되어 왔지만, 조합원들은 출퇴근 선전전을 넘어 두산그룹 본사앞 집회 등을 적극 펼쳐 나갔다. 이는 매시기 투쟁과 간담회, 학습을 무기로 조직력 강화사업에 총력 매진해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인천지부 10기 지도부 취임 및 10기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소식

인천지부 10기1년차 정기대의원대회가 2018년 1월 12일, 14시부터 민주노총 인천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한대훈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의원대회는 1부 기념식에서 9기 김현동 전 지부장의 이임사와 10기 두대선 지부장의 취임 및 대회사로 진행되었다. 또한 모범지회에는 단결투쟁상에 만도헬라지회, 조직강화상에 한국펄러지회, 연대투쟁상에 삼성전자서비스인천지회가 수여했으며, 인천지부 소속 17개지회 18명이 모범조합원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이에 2부 본회의에서는 ▶ 9기2년차 지부 사업·결산보고 및 평가 승인 / 10기1년차 지부 사업계획 승인 / 10기 1년차 지부 사업예산 승인 건이 모두 만장일치로 원

안이 확정되었다. ▶ 민주노총 파견대의원은 두대선 지부장, 배순학 현대제철 수석부지회장, 김상균 현대제철 부지회장, 박광연 K&M 지회장, 윤화심 교육선전부장이 선출되었고, 후보대의원에는 김대형 현대제철지회 조직부장과 김원섭 동광기연 지회장을 확정했다.

또한 금속노조 파견중앙위원에는 두대선 지부장과 김종찬 현대제철지회 지회장을 선출했다. ▶ 인천지부 10기 감사위원에는 손기중 현대제철지회 사무장, 김종근 K&M 지회 수석부지회장, 김용철 한국ITW지회 회계감사가 지부 감사위원으로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번 인천지부 10기1년차 정기대의원대회는 10기 지도부



▲ 1월 12일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두대선 지부장과 모범조합원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의 힘있는 출범과 함께 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지원투쟁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결의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